



■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참여 안내 (2019. 6. 10.)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출신학교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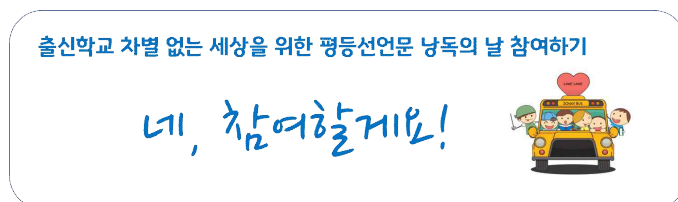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15일 (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 정치권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비상 운동의 일환임.
- ▲ 촛불의 성지 광화문, 그리고 그 옆 시청 광장에서 30분 간격, 2회에 걸쳐 플래시몹 형태로 평등선언문을 낭독하고 시민발언대를 운영할 것임.
- ▲ 100여명의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들이 3·1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착안한 평등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학력·학벌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감동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1인시위, 서명운동, 프사 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 평등선언문을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낭독하고자 합니다. 촛불의 성지 광화문, 그리고 그 옆 시청 광장에서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플래시몹 형태로 평등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누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회원분들을 포함, 가족과 함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가족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 아이와 손잡고 광장으로 나와 주세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발대식에서 읽었던 감동적인 평등선언문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출신학교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한다.”
- **참여대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그리고 시민 누구나
- **일시**: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 **장소**: [1차]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 이동- [2차] 12시 시청 광장
- **세부내용**: [1차, 2차] 평등선언문 낭독, 시민발언대 최대 5인
- **문의**: 김은중 연구원 070-7602-2724



2019. 6.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별첨]

4·9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위한 평등선언서

1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학력, 학벌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출신학교 차별은 불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공정하고 바르게 평가받는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2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출신학교 차별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며, 오천만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학벌 기득권의 전횡이 끝났음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이 나라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온 국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운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구시대의 유물인 학력-학벌 차별에 기회를 빼앗겨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세월은 셀 수도 없다. 우리의 평등권을 빼앗긴 지 몇 년이며, 경쟁 교육에만 몰입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며, 교육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막심하며, 우리의 인성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를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4

예로부터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가장 긴급한 임무가 출신학교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학력, 학벌의 폐해를 모두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퍼지 못하겠는가!

5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고 해서 의원들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차별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온 학벌주의자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만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출신학교 차별 당하지 않고 능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6

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차별의 시대는 가고 평등의 시대가 온다.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 탄 우리에게 주저하거나 거리낄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본디 타고난 평등권을 지켜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평등의 꽃을 피우리라.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변화를 요구하니 저 앞의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공약삼장

하나, 오늘 우리의 운동은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이니, 오직 평등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대의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출신학교 차별 금지 운동한 지 4년 되는 해 6월 15일.